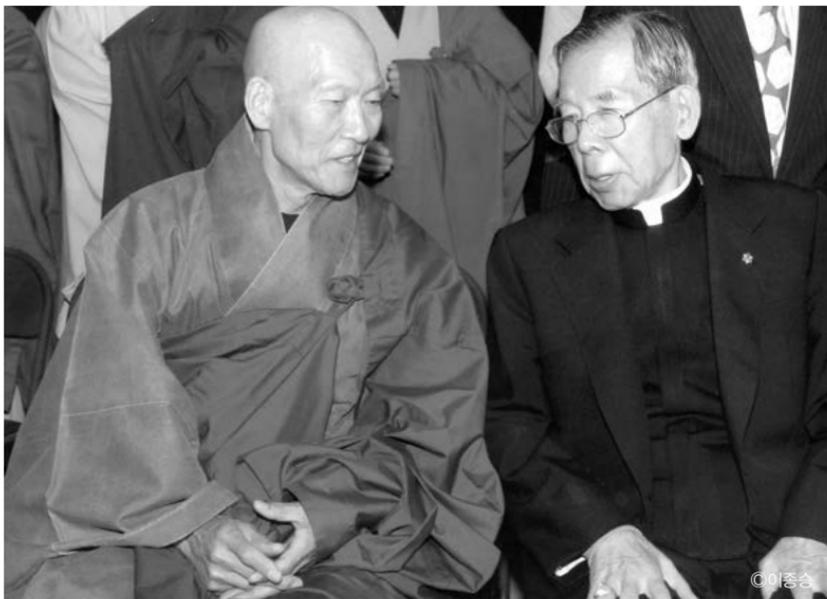


— 마음을, 세상을, 자연을

# 맑고 향기롭게

2020 . 4

맑음은 개인의 청정음,  
향기로운은 그 청정의 사회적 메아리를 뜻합니다. - 法 頂





진흙 속에서도 티 한 점 없이  
맑고 향기로운 꽃을 피워내는 연꽃은  
시민모임「말고 향기롭게」의 정신을 상징합니다.

---

####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욕심을 줄이고 만족하며 삽시다 • 화내지 말고 웃으며 삽시다  
• 나 혼자만 생각 말고 더불어 삽시다.

####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나누어 주며 삽시다 • 양보하며 삽시다 • 남을 칭찬하며 삽시다.

####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우리 것을 아끼고 사랑합니다 • 꽃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가꾸며 삽시다  
• 덜 쓰고 덜 버립니다.

# 2020 / 4

## 법정 스님 입적 10주기 특별판 명상에 이르는 길

산방한담	04	선문답
일기일회	10	지금 있는 바로 그 자리
명상에 이르는 길	15	구도의 길
법정 스님의 애송 선시	28	항상 평등한 마음을 지나라
법정 스님이 두고 간 이야기	29	천주의 초파일
법정 스님의 숨결	33	예배와 염불은
법정 스님의 산중 편지	36	고통은 완성을 위한 시련
법정 마음의 온도	38	자신답게 살고 있다면
자비의 등 안내	40	남을 위해 다는 연등 하나
맑고 향기롭게 활동소식	42	중앙모임 / 지역모임 소식
길상사 소식	50	

(사)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는

우리들 마음과 세상 그리고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가꾸며 살자는 순수시민단체로 본 소식지를 발행합니다.

2020년 4월 1일 발행 / 통권 302호 / 신고번호 성북라00004호 / 1999년 6월 23일 등록

발행인 및 편집인 이형준 / 편집장 홍정근 / 편집위원 주소영

발행처 맑고 향기롭게 모임 : 서울시 성북구 선잠로 5길 68(성북동 323번지) 길상사 내

전화 (02)741-4696 전송 741-4698

인쇄인 · 인쇄처 디자인나경 유경은

대구모임 : (053)753-8883 / 경남모임 : (055)266-0710 / 광주모임 : (062)236-3129

http://www.clean94.or.kr / E-mail : clean94@hanmail.net

길상사는 맑고 향기롭게 모임을 후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정스님에 의해 창건된 사찰입니다.

전화 (02)3672-5945 전송 3672-5947 / http://www.kilsangsa.or.kr / E-mail : kilsangsa@hanmail.net

## 신문답

글 • 법 정(法 頂)

세상에는 인사법도 가지가지다. 요즘은 대개 “안녕하십니까?”로 두루 통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밤새 안녕하셨습니다습니까?” 또는 “진지 잡수셨습니까?”처럼 진지한 염려를 주고 받던 시절이 있었다. 또 요 몇 해 전 부터는 안면에 따라 손을 꼭 쥐면서 “그새 별고 없으셨습니까?”라고 나직하게 주고받는 경우도 있다. 단순한 인사치레가 아니라 궁금했던 신변의 안부를 묻는 인사다. ‘별고 없느냐’는 이 문안은 전에 없던 별고 속에서 별난 세상을 별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 특유의 별스런 인사말이 기도 하다. 이와 같은 인사말에는 다분히 시사적인 입김이 배어 있다.

그러나 출세간에 몸담아 살고 있는 선승들끼리 나누는 첫 대면의 인사말은 흔히 오는 곳을 묻는다. “어디서 오십니까?” 또는 “어느 곳에서 왔는가?” 이런 물음은 수사관들이 불심검문하는 류의 그런 뜻이 아님은 물론이다.

선승들은 석 달 동안 한곳에 머물러 안거 정진하고, 그 후 석 달 동안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행각으로 정진을 삼는다. 그러니 ‘어디서 오는가’라는 물음이 인사가 될 수밖에. 그러나 이때 묻는 어느 곳은 특정한 지역이나 공간을 가리킴이 아니고 의도적인 ‘어떤 곳’을 말함이다.

8세기 후반부터 9세기 말까지 무려 백스무 해를 살았던 조주 선사는 당시의 중국에서 ‘조주고불(趙州古佛)’이라고 불릴 만큼 뛰어난 선승이었다. 그는 처음 서상원이라는 절에 들어가 사미승이 되었다. 사미란 비구가 되기 전 스무 살 미만의 연소한 견습승을 가리킨다. 열여덟 살 때, 그 전부터 이름을 들어오던 남전(南泉) 화상을 찾아간다. 남전은 이때 몸이 고단했음인지 주지실에 누워 있었는데, 한 사미승이 들어와 인사하는 것을 보자 대뜸 “어디서 왔느냐?”고 묻는다.

“서상원(瑞相院)에서 왔습니다.”

“허, 그래? 그럼 서상을 보았느냐?”

서상원에서 왔다는 말에 상서로운 상(相)을 보았느냐는 화상의 물음이다. 사미는 지체 없이 대답한다.

“서상은 보지 못했사오나 누워 계신 부처님은 보았습니다.”

남전은 벌떡 일어나 앉는다. ‘보통 물건’이 아님을 보고 내심으로 기뻐던 것이다.

“너는 주인이 있는 사미나, 주인이 없는 사미나?”

정해진 스승이 있느냐는 물음이다.

“주인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이때 사미는 자리에서 일어나 화상을 향해 큰절을 하고 나서 천연스럽게 아뢰다.

“정월이라고는 하지만 아직도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큰스님께서 법체 청안하시옵기 바랍니다.”

사미는 이제 남전을 자신의 스승으로 여기고 예배드린 것이다. 남전 화상도 그를 기특하게 여겨 특별히 보살피게 된다.

이와 같이 조주 선사는 어렸을 때부터 선기(禪機)를 지닌 뛰어난 말재주로 누구나 알아듣기 쉬운 일상적인 대화를 통해 크게 교화를 떨쳤다.

그는 허리에 물병을 차고 손에는 지팡이를 짚은 채 여러 수도원을 편력한다. 그리고 항상 안으로 다짐하기를, ‘7세 동자라도 나보다 나은 자에게는 기꺼이 배우고, 백 살 된 노인일지라도 내게 미치지 못하는 이에게는 가르침을 베푸리라.’고 했다.

나이 여든 살이 되어서야 비로소 조주(趙州)지명, 그의 이름도 여기에서 유래)의 동쪽에 있는 관음원의 주지가 되었다. 그 절은 조그맣고 가난하여 겨우 끼니를 이어갈 정도였다. 선사는 여위고 헐벗었지만 몸가짐을 조금도 흐트러뜨리지 않았다. 좌선하는 선상(禪床)의 다리 하나가 부러지자 타다 만 장작개비를 대고 새끼로 묶어서 사용했다. 누가 새로 만들어 드리겠다고 나설 때마다 선사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40년 동안 한 절의 주지로 있으면서도 신도의 집에 편지 한 장 띄우는 일이 없었다. <조주록(趙州錄)>을 보면 눈이 번쩍번쩍 뜨

이는 대목이 많지만, 선사는 장난기도 대단했던 모양이다.

어떤 지방 장관이 선사에게 물었다. “큰 스님일지라도 지옥에 들어가는 일이 있습니까?”

선사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내가 먼저 들어갈 거야.”

“큰 스님께서 어쩌서 지옥에 들어가십니까?”

“내가 만일 들어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대를 만날 수 있겠는가.”

또 이런 문답도 있다. 유교의 한 선비가 스님이 짚고 있는 주장자(지팡이)를 보고 탐이 나서 물었다.

“부처님은 중생의 원을 들어 준다는데, 그게 정말입니까?”

“그렇지.”

“저는 노스님이 짚고 계신 주장자를 갖고 싶습니다. 주시겠습니까?”

“군자는 남이 좋아하는 것을 빼앗지 않는 법이라네.”

“스님, 저는 군자가 아닙니다.”

“나도 부처가 아니라네.”

우리가 선사들의 어록을 읽는 것은 말재주를 익히기 위해서나 지식을 쌓기 위해서가 아니다. 오로지 수행의 덕을 배우기 위해서다. 지식은 자랑을 일삼지만 수행의 덕은 지혜와 자비를 낳는다. 출세간의 대화인 선문답이 사이버들에게는 그 본래의 투철한 대화 정신을 망각하고 한낱 말장난에 떨어질 위험이 따른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선문답은 지식이나 정보의 교환이 아니라 전인적인 지혜의 대화다.

한 나그네가 방랑 끝에 출가 수도승이 되려고 했다. 의지할 스승을 찾아 금강산 신계사로 큰스님을 찾아갔다. 큰방에 엎드려 삼배를 드리고 나니 “어디서 왔는가?”라고 예의 물음이 던져졌다.

“유점사에서 왔습니다.”

이 대답이 떨어지기 무섭게 그

스님은 다그쳐 물었다.

“몇 걸음에 왔는가?”

길을 걸을 때 걸음을 세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선의 세계에서는 흔히 비~~非~~상식이 상식으로 통한다.

이때 만일 몇 걸음이라고 실제의 걸음을 알아서 대답한다면, 그것은 너무도 어리석은 답이 되고 만다. 그야말로 김이 새어 버리고 만다. 그리고 선문답은 말이 떨어지자마자 곧 알아차려 대답해야지 어물어물하면 그르치고 만다. 생사가 호흡 사이에 있듯이 선문답의 생명도 호흡 사이에 있는 것이다.

몇 걸음 왔는가라는 물음에 나그네는 별떡 일어나 큰방을 한 바퀴 빙 돌고 앉아 “이렇게 왔습니다.”라고 대답했다.

‘통쾌하구나, 나그네의 거동이며. 동지 선달 설한풍<sup>雪寒風</sup> 속에서도 꽃이 피고 나비가 날겠다. 그 장단에

그 춤이로다.’

큰스님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거렸다. 그날로 머리를 깎아 주면서 출가를 허락, 그의 이름을 효봉(峯)이라 부르게 되었다. 스승의 이름은 ‘금강산 도인’으로 불리던 석두(石頭) 화상이다.

효봉 선사가 대구 동화사 금당 선원의 조실로 계실 때 동안거가 끝나는 해제날 법상에 올라 이런 법문을 했다.

“대중에게 묻겠노라. 여기 모인 대중 중에서 숫사자가 낳은 새끼를 본 사람이 있는가? 있거든 이 자리에 나와서 일러 보라.”

숫사자가 새끼를 낳다니 일반의 상식으로서는 천부당 만부당한 소리다. 그러나 선의 세계에서는 이 또한 당연한 말로 통한다.

암사자가 낳은 새끼도 짐승 가운데서 왕 노릇을 하는데, 숫사자가 낳은 새끼라면 그 용맹이 어떠하

겠는가. 그런 사람이야말로 출격장부(出格丈夫)라고 할 만할 것이다. 말은 태초부터 하나의 비유의 지나지 않는 것, 비유 뒤의 뜻에 그 열이 담겨 있다. 대중에서 아무 말이 없자 선사는 다시 말을 이었다.

“사지를 바랐더니 모두가 들여우로구나. 진흙 속에서 언제 금옥이 빛을 발할꼬. 결제할 때는 대중을 형제처럼 여겼더니 해제인 오늘은 대중이 원수처럼 보이노라. 우리가 이곳에 모인 것은 명예와 이익을 얻고자함도 아니고 옷가지와 음식을 위해서도 아니며 안일을 탐하려는 것도 아니다. 오로지 생사를 해탈하여 부처와 조사의 지혜를 이어 끝없는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니라.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힘쓰라!”

선사는 일흔아홉의 생애를 마치면서 다음과 같은 계송을 남겼다.

‘내가 말한 모든 법/그거 다 굳더 더기/오늘 일을 묻는가/달이 일천

강물에 비치리.’

서산 대사 휴정과 사명 스님이 첫 대면에서 주고받은 문답은 다음과 같다. 사명 스님이 법을 배우기 위해 묘향산으로 휴정 선사를 찾아갔다. 문안 인사를 드리고 나니 “어디서 오시고?” 하고 선사가 묻는다. 사명은 고개를 들어 선사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답한다. “옛길을 따라 옵니다.”

이 말은 아득한 옛적부터 도를 구하기 위해 수많은 수도승들이 스승을 찾았던 그 구도의 길을 따라왔다는 뜻이었다. 선사는 앞산에 찌르릉 메아리가 울릴 만큼 큰소리로 한마디 한다.

“옛길을 따르지 말라!”

선은 모방과 획일성을 배격한다. 저마다 입을 달리하면서 자기 삶을 살고 있는데, 어째서 남의 흉내나 내면서 범속하게 살려 하느냐는 것이다. 독창적인 자기 세계를 일깨워

개척하지 않고 남이 닦아 놓은 남의 길을 안이하게 가려느냐는 질책이다.

선은 이처럼 모방과 획일성을 거부하는 대신 개인의 특성과 창의력을 존중한다. 두 사람의 석가나 똑같은 달마는 필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선은 인간의 내면에 있는 무한한 창조성에 몰입하여 끝없는 빛無量光과 한없는 목숨無量壽을 드러내는 일이다. 끝없는 빛은 지혜를, 한없는 목숨은 자비를 상징한 말. 그러므로 선은 그 어디에도 얽매이거나 거리낌이 없는 자유의 길이다.

진리를 찾는 나그네들이여, 저마다 자기 길을 개척해 나갈 것이지 모방과 획일로 거세된 범속한 길을 따르지 말라.

남의 길을 따르지 말고 자기 길을 당당하게 가라. 1977

---

• 발췌 : 「서 있는 사람들」

## 지금 있는 바로 그 자리

글 • 법 정(法 頂)

책을 읽는 것도 음악을 듣는 것도 금지되었던 90일 동안의 겨울 안거가 끝나고, 이제 세상이 선방이 되었다. 이날 서울에는 봄비가 촉촉이 내려 절 한켠의 청매가 꽃망울을 맺었고, 전날 꺾어 방안에 꽂아 둔 가지에선 매화 몇 송이가 진한 향의 꽃을 피웠다. 스님은 법회 전 두세 사람과 함께 매화차를 마셨다. 법회가 끝난 뒤 청중은 오곡밥에 나물로 된 공양을 마치고, 어느 신도가 보시한 백설기 한 조각씩을 받아든 채 봄비에 젖는 세상 속으로 돌아갔다. 법회 다음 날은 경칩을 하루 앞두고 있는데도 다가오는 봄을 시샘하듯 강풍과 눈을 동반한 꽃샘추위가 매섭게 휘몰아쳤다.

석 달 동안 수행 잘하셨습니까? 지난 결제일에 저는 이 자리에서 도량에 대해 이야기 했습니다. 곧은 마음, 직심(直心)이 곧 도량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디에도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마음, 정직한 마음, 분별과 집착을 떠난 평온한 마음이 도량입니다. 거듭 말씀 드리지만 수행이 있는 곳은 어디나 도량입니다.

원래 도량(道場)이라는 말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도를 이룬 인도 보드가의 '보리도량'에서 나온 것으로, 깨달음을 얻은 장소, 도를 이룬 장소를 가리킵니다. 흔히들 어떤 특정한 장소에 집착하여 꼭 그곳을 찾아가야만 기도와 수행이 이루어진다고

착각합니다. 이는 도량의 본래 뜻에서 벗어난, 비본질적인 관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가장 이상적인 도량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해인사 장경각의 법보전 양쪽 주련(기둥이나 벽에 장식으로 써 붙이는 글귀)에는 '원각도량하처 현금생사즉시(圓覺道場何處 現今生死即時)'란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원각도량하처, 원각도량이 어느 곳인가. 원만하게 깨달은 부처님이 계신 도량이 어딘가 하는 물음입니다. 현금생사즉시, 오늘 이 자리가 바로 그 자리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숨 쉬고 행동하는 이 현실 자체가 부처님 세계라는 응답입니다. 바로 그곳이 원각도량입니다. 즉 극락세계가 어디 먼데 있는 것이 아니라, 2,500년 전 인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자신이 몸담아 사는 그 자리가

곧 더없이 훌륭한 도량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절에 가면 보게 되는 주련 글귀들이 다 훌륭한 법문입니다. 부처님 경전에서 인용한 법문이기 때문입니다. 건성으로 구경하거나 장식품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 내용의 의미를 알아 법문으로서 받아들이면 살아가는 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경험한 도량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20년 전 제가 처음 인도에 갔을 때 겪은 일입니다.

산치 탐을 참배하고 나서 아잔타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산치 탐으로 가려면 뉴델리에서 급행열차로 14시간 30분이 걸립니다. 그리고 다시 산치에서 아잔타까지는 보팔에서 뭍바이 행 열차를 타야 합니다. 보팔은 제가 그곳에 가기 5년 전(1984년) 미국 기업 유니언 카바이드사의 독가스 공장이 폭발하여, 2,500

명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은 도시입니다.

보팔에서 밤기차를 타야 하는데, 승차권은 있어도 좌석이 없다고 했습니다. 입석입니다. 그다음 날도 좌석은 보장할 수 없다고 하기에 하는 수 없이 그 기차를 타야만 했습니다. 인도는 단체가 아닌 개인이 여행하기에는 교통수단이 아주 열악한 곳입니다. 20년 전의 사정이 그러했습니다.

겨우 열차에 올랐지만 비좁고 들어설 틈이 없었습니다. 통로까지 사람이 꽉 들어차 다들 바닥에 앉거나 누워 있었습니다. 여기 저기 살펴보니 화장실 옆 통로 한쪽에 겨우 한 사람이 앉을 만한 틈새가 눈에 띄었습니다. 인도의 열차는 객차와 객차 사이가 막혀 있고 창문마다 철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리 잡은 곳은 좌우로 두 개의 화장실이, 소위 인도식과 서양식이 마주하고 있

는 출입구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바닥에 솔을 깔고 앉았습니다. 두 화장실 틈바구니에서 밤을 새울 걸 생각하니 무척 난감했습니다. 오기로 버티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밤새 화장실을 들락거렸습니다. 그때마다 역겨운 지린내를 맡아야 하고 배설하는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나는 왜 이런 고생을 하면서 여행을 계속해야 하나?’

처음에는 슬그머니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자정이 되자 문득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나는 단순한 관광객이 아니라 부처님의 성지를 순례하러 나선 수행자가 아닌가. 옛날 구법승들은 오로지 두 발로 걸어서 그 험난하고 위험한 열사의 사막 길을 건너왔는데, 그래도 나는 항공기와 열차를 이용하고 있지 않은가. 다른 승객들은 아무렇

지도 않게 먼지 바닥에 주저앉기도 하고 드러눕기도 한다. 똑같은 인간인 내가 저들이 견디는 일을 견딜 수 없다면, 나는 저들과 같은 인간 대열에도 끼지 못할 것이다. 저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겪는 일을 나라고 못할 게 무엇인가?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문득 ‘관념의 차이’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부터 화도 불만도 사라지고 마음이 더없이 평온해졌습니다.

그토록 혼잡한 열차 안이었지만, 그날 밤에는 당시의 인도 여행 중에서 가장 맑고 투명한 의식 상태를 지닐 수 있었습니다. 그 화장실 앞에서 어떤 성지에서보다도 평온하고 순수한 의식 상태를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아침 6시, 아잔타 석굴에서 가장 가까운 60킬로미터 거리의 잘가온역에 도착할 때까지 저는 지극히

평온한 선열(禪悅)(선정에 들어 느끼는 기쁨)에 충만해 있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선정삼매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 전날 14시간 반이나 기차를 탔고, 지난밤에도 8시간 반을 그 틈새에서 지냈는데 전혀 피로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 화장실 앞 틈바구니가 저에게는 고마운 도량이었습니다. 그 어떤 선원이나 명당보다도 고마운 도량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마음먹기에 따라 지옥이 천당으로 변할 수 있고, 천당이 지옥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도하고 수행하는 도량을 어떤 특정한 장소로 한정 짓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처한 삶의 현상이 곧 도량입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가정이나 일터가 진정한 도량이 되어야 합니다. 어수선하

고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이 혼돈스 이 아닙니다.  
 러운 세상에서 도량이 없으면 세상  
 의 물결에 휩쓸려 버립니다. 분별과 이상적인 도량은 어디에 있는가?  
 집착을 떠나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 지금 그대가 있는 바로 그 자리!  
 는 깨달음을 얻는 곳이 곧 도량입니  
 다. 좌청룡, 우백호 다 갖춘 명당에  
 있어도 직심이 없으면 진정한 도량

- 2007년 3월 4일 겨울안거 해제 법문 -  
 •발체 : 「일기일회」

##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 후원

'길이 열리는 만큼 물이 흐르듯 본 모임의 사업은 회원님께서 후원해 주시는 만큼 펼쳐집니다. 맑고 향기롭게 모임은 100% 회원님의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사)맑고 향기롭게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활동소식을 비롯하여 법정 스님의 글과 삶의 지혜가 담긴 알차고 유익한 월간 '맑고 향기롭게'를 정기적으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 스마트폰 사용자를 위하여 맑고 향기롭게 홈페이지 모바일 버전과 앱(APP)을 구축하여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의 활동소식을 모바일로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 회원 가입은 홈페이지(www.clean94.or.kr)나 사무국으로 방문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 후원해 주신 모든 기부자께는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위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 구도의 길

글 • 법 정(法 頂)

깨어 있어야 합니다. 왜 절에 가는가? 왜 교회에 가는가? 그때그때 스스로 물어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 삶이 개선됩니다. 삶을 개선하지 않고 종교적인 행사에만 참여한다고 해서 신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무엇 때문에 내가 절에 나가는가, 무엇 때문에 내가 교회에 나가는가 그때그때 냉엄하게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상적인 타성에 젖어서 신앙적인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 보다 훨씬 어리석은 짓을 할 수가 있습니다.

\*

때때로 자신의 삶을 바라보십시오. 자신이 겪고 있는 행복이나 불행을 남의 일처럼 객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삶을 순간순간 맑은 정신으로 지켜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행복과 불행에 휩쓸리지 않고 물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늘 깨어 있으라고 수많은 영적 스승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는 말은 자기 삶을 늘 주시하라는 뜻입니다. 자기 삶을 주시하고 있으면 고통과 불행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

수행의 첫 번째 과제는 자기가 하는 일을 늘 살피는 것입니다. ‘이 무엇인가?’의 참구가 바로 그 의미입니다. 참선과 염불, 간경(看經)(독경, 경전을 읽는 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주시하라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살피면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고통에 짓눌리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힘과 지혜가 그 안에서 싹틔웁니다. 자기 자신을 주시하면서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우리가 살 만큼 살다 보면 언젠가는, 내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때 가서 아까워하며 망설일 것 없이, 내려놓는 일을 미리부터 연습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내려놓는 일도 하나의 수행이고 정진입니다. 단지 물건이나 생각을 내려놓는 데서 벗어나 그 자체가 하나의 수행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거듭거듭 털고 일어서는 수행이 되어야 합니다.

\*

삶 자체가 수행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거듭거듭 성숙해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지혜와 용기가 생겨서 휩쓸리지 않고 깨어 있는 정신으로 헤쳐 나갈 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에 자기 삶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 나는 어떤 수행을 했는가? 오늘 하루, 타인에게 무엇을 베풀었는가? 내 인생의 금고에 어떤 것을 축적했는가?

이렇게 점검한다면 하루하루의 삶이 결코 소홀해지지 않고 날마다 새로운 날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죽은 화두를 가지고 헛되이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됩니다. 살아 있는 화두를 가지고 정진해야 합니다. 보리심이 살아서 꿈틀거리는 화두를 통해 수행의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수행하는 분들, 특히 참선하는 분들, 염불 혹은 기도하는 분들도 낱알이 살피보십시오. 내가 간절하게 하는 일이 보리심을 발하는 일인가 아닌가? 내 수행이 남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면 그것은 바른 수행입니다. 혼자만 좋아서 하는 수행은 바른 수행이 아닙니다.

\*

저는 늘 잊지 않습니다. 내가 과연 안팎으로 출가 수행자답게 살고 있는가? 마음 씀이 수행자로서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가? 또 내가 무엇을 위해 이 길에 들어섰는가?

구도자는 이와 같은 자기반성으로 순간순간 깨어 있어야 합니다. 불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늘 깨어 있는 상태입니다. 본래의 자기로서 늘 깨어 있는 것입니다.

\*

수행자에게는 늙음이 없습니다. 늘 그 자리입니다. 수행을 하지 않는 사람

에게는 늡음과 죽음이 있지만, 수행에는 늡음이 없습니다. 늡 깨어 있기 때문에 세월이 비껴 갑니다. 간절한 소망과 원, 행이 없기 때문에 세월이 그곳에 앙금을 이루어서 안주하는 것이지, 늡 살아 있는 존재에게는 세월이 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늡 초심初心, 시작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초심이 중요합니다. 집을 나왔을 때의 첫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을 지니고 있으면 세월이 붙지 않습니다.

\*

좌선은 선방에서 스님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좌선은 모든 불교도의 기본자세입니다. 부처님의 앉아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모든 불자들의 기본적인 수행입니다.

좌선은 새삼스럽게 깨닫기 위한 수행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커다란 환희의 법문입니다. 아무 잡념 없이 우리가 부처님처럼 앉아 있는 이 자체가 커다란 대안락의 법문입니다. 때 묻지 않은 청정 법신의 모습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좌선을 하는 것은 새삼스럽게 깨닫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애써서 수행을 하는가? 본래의 밝음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닳지 않으면 오염되기 때문에, 성장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퇴보하고 물들기 때문입니다.

\*

지난 여름, 제게 있어 가장 보람되고 즐거웠던 시간을 꼽으라면, 아침저녁으로 개울물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묵묵히 앉아 있던 그 시간입니다. 책

읽고 밖에 나가서 일하는 시간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묵묵히 개울물 소리에 귀를 맡기고 조용히 앉아 있을 때가 가장 기쁜 시간입니다. 이것을 선열위식禪悅爲食이라고 하는데, 선의 기쁨으로 밥을 삼는다는 뜻입니다. 불자들은 그런 수행을 꼭 안겨 기간만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불교 수행자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그런 자기 충전을 통해 이 험난한 세상을 무난히 헤쳐 나갈 수 있습니다. 만일 자기 충전의 시간이 없다면 늘 중생 놀음, 여기에 팔리고 저기에 휩쓸리며 살아 가게 됩니다. 자기 충전의 시간은 곧 자기 중심의 시간입니다. 순수한 자기 존재의 시간입니다. 그런 시간을 될 수 있으면 많이 가져야 합니다.

\*

수행이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보살행입니다. 남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수행입니다.

불교의 수행은 행보리심이고 보살행입니다. 행의 궁극적인 종점이 곧 깨달음입니다. 신해행증信解行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믿고, 이해하고, 행하면 그 행의 결과로 깨달음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억할 점은 깨닫고 나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행의 완성이 곧 깨달음이라는 사실입니다. 행 속에 이미 깨달음이 들어 있습니다. 마치 과일 속에 씨앗이 들어 있듯이.

\*

깨달음이란 무엇입니까? 어느 날 새벽별을 보고 갑자기 사람이 달라지는 것이 깨닫는 일이 아닙니다. 순간순간 새롭게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무명無

명의 구름에서 벗어나 맑은 하늘을 스스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이 물음을 지녀야 합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무엇을 위해 왔는가?’

우리 자신이 스님인가 일반 신도인가, 불교에 귀의한 지 오래되었는가 몇 해 되지 않았는가에 대해선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내가 부처님 제자로서 얼마만큼 자비심을 지니고 있는가, 그 자비심을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가입니다.

\*

마음공부란 무엇인가? 기도하고 참선하고 참회하는 일은 진정한 자아를 실현하기 위한 간절한 염원이며 수행입니다. 이와 같은 수행을 거치면서 사람은 인간답게 성숙해 갑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성숙해져야 합니다. 성숙하지 않고 옛날 그대로 있다면, 그 사람은 전혀 성장하지 않고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입니다.

각자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 자신, 자아의 실현을 위해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하루하루 내 생을 소모하며 살고 있는데 과연 자아실현을 위해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

참선이나 기도는 남에게 보이거나 알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서 은밀히 해야 합니다. 여럿 속에 섞여 있을지라도 은자처럼 처신해야 합니다. 혼자 하는 기도는 조용하게 하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을 지녀서는 안 됩니다. 이기심은 수행이 아닙니다. 흔히 기도

할 때 보면 혼자 소원을 다 차지할 것처럼 욕심 사나운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좋다는 기도처에 가 보면 모두가 그렇지는 않지만 탐욕스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것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혼자 복을 받겠다는 생각은 부질없는 짓입니다.

\*

기도하는 사람들은 입으로는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을 열심히 부르면서 자신도 자신이 직접 그런 보살이 될 줄은 모릅니다. 그 분들은 역사적으로 과거에 있었던 특정한 분들이 아닙니다. 누구나 관세음보살이 될 수 있고 지장보살이 될 수 있습니다. 입으로만 관세음보살을 부르지만 나 자신이 관음의 화신이 되십시오. 남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지장보살이고, 지극한 자비가 관세음보살입니다. 마음 밖에서 찾지 마십시오. 참선하고 기도하는 주체인 마음에서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

마음이 안정되어야 기도와 명상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 하러 절이나 교회에 나올 때 법당이나 교회당 안에 들어서야만 기도가 시작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집을 나설 때부터, 또 차 안에서부터, 지하철 안에서부터 기도하고 명상해야 합니다. 시간에 쫓겨서 빨리 절에 가야 한다. 기도 시간에 늦지 않도록 가야 한다는 바쁜 생각을 가지면 기도도 아니고 명상도 아닙니다. 문을 나설 때부터 기도가 되어야 하고 명상이 되어야 합니다.

\*

기도와 명상은 특정 장소나 정해진 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팎이 한결같아야 합니다. 기도와 명상이 끝나고 나서도 한결같아야 합니다. 대개 보면 방선(放禪)(참선을 쉬는 것) 시간에 뒷방에서 잡담을 합니다. 기도가 끝나고 나면 기도하던 시간과는 사뭇 다르게 처신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수행자는 이런 것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

구도의 길도 바람 같은 것이 아닐까요? 끝없이 찾아 나서는 데서 삶의 의미를 거듭거듭 다지는 나그네 길. 날마다 좋은 날이란 말도 있듯이 날마다 새롭게 피어날 수 있는 새날이어야지, 그날이 매양 그날이라면 늙은이에 갇힌 물처럼 썩게 마련입니다. 물도 바람처럼 흘러야 살 수 있습니다. 운수(雲水)라는 말에는 매인 데 없이 흥분하게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산다는 뜻보다도, 늘 살아서 움직이라는 데 본질적인 의미가 있어야 합니다.

\*

선이란 밖에서 얻어 들은 지식이나 이론으로써가 아니라, 자신의 구체적 인 체험을 통해 스스로 깨닫는 일이다. 이것은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직관적으로 파악하는 것, 철저한 자기 응시를 통해 자기 안에 잠들어 있는 무한한 창조력을 일깨우는 작업이다. 그래서 선을 가리켜 지식이 아니라 체험이라고 한 것이다. 이 무한한 창조력이 사랑이라는 온도와 지혜라는 빛으로써 이웃에게 발휘될 때 선은 일상 속에서 살아 움직인다.

\*

우리들이 홀로 있다는 것은 온전한 내가 존재하는 것이다. 현대인들은 지나친 접촉으로 인해 홀로 있는 시간을 거의 잃어버린다. 뻑뻑하게 꽂혀 있는 밀실에서 툭 트인 허공을 익힐 필요가 있다. 무심한 경지가, 순수 의식의 상태가 아쉽다. 그러므로 홀로 있음은 보랏빛 외로움이 아니라 본래의 자기로 돌아가는 길이다. 그것은 당당한 인간 실존이다. 사람은 홀로 있을 때 순수해진다.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된다. 그리고 궁리를 한다. 가장 올바른 것을 생각하고, 깊은 것을 들여다보고, 높은 것에 눈을 주게 된다. 또한 사람이 홀로 있을 때는 죽음이라든가 영원 같은 비일상적인 것을 헤아리게 된다. 저만치서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는 자기 모습을 본다. 껍질에서 알맹이를 찾는다. 그래서 제정신을 차리게 된다.

\*

내 삶에 성이 차지 않을 때 나는 입을 다뭍니다. 밖으로 향했던 관심과 시선을 안으로 돌립니다. 묵은 밭을 일구듯이 내 속뜰을 다시 경작합니다. 벽을 향해 허리를 곧추세우고 묵묵히 앉아 있으면 마음이 참 편안합니다. 마음의 바다에 부침하는 사물들을 지켜보면서 스스로를 텅텅 비웁니다. 텅텅 비워버려야 새로운 메아리가 울려옵니다.

안으로 시선을 돌리면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져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세계에 마음을 쓰고 그것을 두둔하게 되지요. 이 세상 모든 것이 우리 마음에 매인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

오늘날 우리들은 머리와 입만 커다랗게 열려 있지 가슴과 발은 점점 퇴화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지극히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인간으로 팔팔한 생명의 빛을 잃어간다. 따라서 대지와와의 관계가 그만큼 멀어지고 있다. 더 말할 것도 없이 대지는 모든 생명의 근원.

선은 대지와 밀착할 수 있는 마음과 몸의 단련이다. 좌선은 그 어디에도 의존함이 없이 당당하게 홀로 직립하는 모습. 새삼스레 깨닫기 위해서가 아니라, 좌선 그 자체가 본래적인 자아의 살아 있는 모습이고 대안락(大安樂)의 법문이다.

\*

자기 자신을 거듭거듭 구축해나가려면 홀로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수행자는 진정한 고독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고독을 모르면 때가 묻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말이 적어야 합니다. 어떤 생각이 떠오른다고 해서 그것을 어떻게 말로 다 쏟아버릴 수 있겠습니까. 말이 많으면 마음이 산란해질 뿐 아니라 속이 비게 됩니다.

\*

온갖 모순과 부조리와 갈등으로 뒤엎힌 이 풍진 세상을 살아가려면, 무엇보다도 말짱한 정신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살다보면 일상의 타성에 젖어 자칫 게을러빠지기 쉽다. 그 타성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정진하는 길밖에 없다.

\*

안으로 깊이 탐구하는 사람은 새로운 샘물만을 찾아 끝없이 헤매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항상 목이 말라 갈증을 면할 길이 없다. 일단 샘을 하나 찾았으면 그 샘에서 날마다 길어 마시면서 영혼의 갈증을 달래야 한다.

\*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낙숫물이 돌을 뚫는다. 한 개의 물방울은 보잘 것없이 미미한 것. 그러나 그 방울물이 모여서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룬다.

그리고 물은 부드러운 속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부드러움이 쉬지 않고 꾸준히 한곳에 집중을 되풀이하면 돌처럼 단단한 것도 마침내 뚫고 만다는 교훈이다. 우리들이 날마다 행하는 정진도 바로 이런 뜻에서 쉬지 않고 되풀이를 하는 것이다.

\*

그날 하루를 마감하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단 5분간이라도 좋으니 허리를 펴고 바로 앉아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반성해보라. 인간답게 살았는지 아닌지를 되돌아보라.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

당신의 마음에 어떤 믿음이 움터나면 그것을 가슴속 깊은 곳에 은밀히 간직해 두고 하나의 씨앗이 되게 하라. 그 씨앗이 당신의 가슴속 토양에서 싹트게 하여 마침내 커다란 나무로 자라도록 기도하라. 묵묵히 기도하라.

\*

선은 설명이나 해설에 의해 진리를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속에 살아 있는 진리를 자기 눈으로 직접 확인하려는 수행이다. 그래서 마음 밖에서 찾지 말라 하고, 문으로 들어온 것은 집안의 진정한 보배가 될 수 없다고 한 것이다. 얻어들은 지식이나 정보는 언젠가 흩어져 날아가버릴 먼지 같은 것, 거리낌 없는 지혜야말로 그 사람의 무게를 이루고 그의 빛을 발하게 한다.

\*

오늘날처럼 복잡하고 소란스럽고 거칠디거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단순하게 몰입하는 수행법이 보다 적합할 것입니다. 단순하게 몰입하려면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의 마음의 흐름을 살피는 일이 요긴합니다.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마음의 흐름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흐름을 '살피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에 따르지 않고 마음의 주인이 되는 일입니다.

\*

참회는 우리들 인간의 내면생활 가운데서도 가장 승화된 정신적인 현상이다. 자신의 현재와 지나온 자취를 되돌아보고 뉘우쳐 다시는 더 허물을 짓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일은 막힌 인간의 통로를 열어주는 재생再生의 문이다.

아무리 몹쓸 죄인일지라도 그가 참회의 눈물을 흘릴 때, 그에겐 차마 돌을 던질 수 없다. 이제 새로 움트려는 어린 싹을 보고 누가 감히 짓밟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러므로 참회의 속성에는 어린이의 순수가 있어야 한다. 자신의 허물을 표백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저 연등빛 발아<sup>發芽</sup> 같은 순수가 있어야 한다.

\*

우리가 애써 정진하는 것은 새삼스럽게 깨닫기 위해서가 아니라 본래의 깨달음을 드러내기 위해서라고. 이를 본증묘수<sup>本證妙修</sup>라고도 합니다. 왜냐 하면 닦지 않으면 더럽혀지기 때문입니다. 깨닫기 위해서 닦는 것과 깨달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정진을 한다는 입장은 그 틀이 아주 다릅니다. 어떤 바탕 위에서 닦을 것인가는 각자의 수용능력에 달렸습니다.

\*

기도는 인간에게 주어진 최후의 자산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지능을 가지고도 어쩔 수 없을 때 기도가 우리를 도와줍니다. 겪어본 사람 이면 누구나 익히 알고 있듯이, 둘레에 불안한 일이 생겨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안절부절 못 할 때, 간절하게 갈구하는 그 기도가 우리를 도와 주고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줍니다.

기도는 어떤 소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해서 안 됩니다. 또 그 결과를 바라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불순한 거래요, 계약이나 다름없습니다. 오로지 간절한 마음으로 꾸준히 지속해야 합니다. 기도 그 자체에서 삶의 고마움과 기쁨이 우리나라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이 열릴 때가 옵니다. 마음이 열리면 모든 일은 마음 먹은 대로 됩니다.

# 항상 평등한 마음을 지니라

글 • 아운선사

위없는 보리도를 성취하려면  
항상 평등한 마음을 지니라  
사랑하고 미워하는 차별 있으면  
도는 더욱 멀어지고 업만 깊으리



• 발췌 : 「텃 빈 충만」 열린 마음

## 법정 스님 열반 10주기 특별 좌담

### “법정, 나를 몰들이다” 잠정 연기 안내

법정 스님 열반 10주기를 맞아 명사를 모시고 법정 스님의 발자취를 따라 걸으며, 스승이 우리에게 펼쳐 보이려던 지평이 무엇이었는지 짚어 보는 시간으로 기획하였던 좌담회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잠정 연기되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회적으로 안정되는 대로 일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천주의 초파일

글 • 고 현

1991년, 인촌(仁村) 김성수 전 부통령 ‘탄신 백주년 행사’ 때 전통 제례에 참석했던 김수환 추기경께 기자가 물었다.

“가톨릭 수장되시는 분이 어떻게 음식이 차려진 제사상 앞에서 목례도 아닌 무릎을 꿇고 우리식 큰절을 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추기경께서 답하셨습니다.

“왜요? 이상합니까? 이건 우리 문화잖아요. 문화와 종교를 혼동해서는 안 되지요. 전통문화는 문화로서 존중되어야 합니다.”

나는 그때의 신문 기사를 읽고 추기경님의 열린 시각에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법정 스님께서도 어떤 종교에 대해서나 열린 눈을 가지셨다. 춘천 교구 장 장익(전 장면 총리 실재) 주교님과는 유럽의 가톨릭 성지를 함께 여행하실 정도로 오랜 교분이 있으셨다. 평소에도 프란치스코 성인의 삶에 대해 자주 거론하셨고 그뿐 아니라 사막의 교부들 일화, 랍비와 탈무드, 힌두교의 시, 크리슈나무르티가 쓴 〈마지막 일기〉등의 책을 우리들에게 권하기도 하셨다.

1997년 12월 14일, 길상사가 개원하던 날, 당시의 일화는 워낙 언론의 주목을 받았기에 새삼 그 일을 거론코자 함이 아니다. 다만 그날 길상사 법당 안, 부처님 정면 가운데줄, 맨 앞자리에 추기경님과 법정 스님이 나란히 앉아 계셨던 ‘한 폭의 인물화’를 잊지 못할 뿐이다.

그 후 일 년 뒤 ‘명동 성당 축성 백주년 기념미사’ 자리에 이번에는 추기경께서 법정 스님을 초청하셨다. 불교 승려가 한국의 대표 성당 기념미사에 초대되어 천주의 제단 앞에서 법회를 주관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두 분의 교분은 이미 1970년대 군사독재와 함께 싸우실 때 법정 스님의 <무소유> 책을 읽으신 추기경께서 “이 책이 아무리 무소유를 말해도 이 책만큼은 소유하고 싶다”고 극찬하시기 훨씬 이전부터 늘 함께해오셨다.

2005년 5월 15일 부처님 오신 날.

맑고 향기롭게 가족들은 결코 잊을 수 없는 날로 기억될 것이다.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해주기 위해 추기경께서 또 길상사를 찾아주신 것이다. 이번에는 아예 신부님, 수녀님들까지 무려 40여 명의 사제단을 이끌고 마치 길상사를 접수(?)하러 오시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대가족이 찾아준 것이다.

길상사 경내에 있던 수많은 불자들은 일제히 환호하며 기립박수를 보냈고 두 분은 또다시 뜨겁게 손을 잡으셨다.

이날 봉축 음악회 자리에는 개신교 가수 임형주 씨의 ‘아베 마리아’가 있었고 이혜인 수녀님의 부처님 오신 날 봉축 시 낭독도 있었다. 원불교 박청수 교무님도 오셨고, 가수 김수철 씨가 부른 스스로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회한의 노래 '황천길'도 있었다.

성북구 성북동은 특이한 동네다. 주한 외국 공관들도 많지만 '한국의 바티칸'이라 불리울 만큼 천주교 단체와 시설들이 유별 많은 동네다. 그곳에 길상사가 있다는 인연도 우연의 일치일까? 그래서 이날 길상사에 들어온 시주금 전액은 근처에 있는 천주교 사회복지 시설인 '성가정 입양원'에 쌀 뒤주만한 시주함이 통째로 다시 시주되는 뜨거운 우정도 있었다. 주고도 즐겁다. 그래서 '나누는 기쁨'인 것이다.

서로의 종교가 하나 되는 행사 내용도 감동이었지만, 두 분이 나란히 앉아 이따금 담소를 나누는 모습은 두고두고 잊지 못할 백미(白眉)의 작품이었다. 그러나 두 분 다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일까, 저 두 분이 과연 언제까지 살아 계실 것인지..... 기쁨과 환희가 넘쳐야 할 자리에 도리어 가슴이 아리고 멍멍해졌다. 돌아가신 성철 종정께서 오래전 신년 법어에 '법당에 아멘 소리, 예배당에 염불 소리'의 발원을 지금 추기경과 스님께서 나란히 주관하고 계신 것이다.

불교식으로 말한다면 두 분은 '마음의 현상이 곧 우주의 현상'임을 일찍이 깨친 아라한들이다. 그런 능력과 서원으로 평생 중생계를 위해 슬픔, 독재, 폭력, 재난, 민심, 불의, 갈등, 분규들로부터 우리 사회를 토닥거리고 이끌어주셨던 희생의 등불이었다.

왜 우리는 평소에 이처럼 살 수 없는 것일까 왜 우리는 타종교를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로 보려 하며, 서로가 경직되어 다름에 대한 배려를

못 하는 것일까. 왜 우리는 타종교를 친구가 아닌 박멸의 대상으로 보려 하며 ‘하느님은 사랑이다’와 ‘자비심이 곧 부처’라는 동의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일까.

필자만의 괴벽이겠지만 ‘베풀라’는 말보다 ‘바치라’라는 말을 많이 하는 종교, 나와 다른 종교를 이웃으로 보지 않고 공격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종교, 다른 산오름은 절대 인정하지 않고 정상에 오르는 길은 오직 하나 뿐이라고 독선을 가르치는 종교가 아직도 존재한다는 말을 들을 때면 까닭 없는 비애감에 젖기도 한다.

2005년 ‘부처님 오신 날’은 ‘나무아미타불’과 ‘아베마리아’가 맑고 향기롭게 만나는 날이었다. 그 어느 해 부처님 오신 날보다 오늘의 이 감동을 보기 위해 나는 꼭두새벽부터 달려왔으며, 평생 잊지 못할 화상이 되어 내 기억의 바다에 떠 있을 것이다.

세세년년, 이렇게 살자고 발원해본다. 나무 아멘南無, amen.

---

**고현**·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불교와 인연이 되어 우천(又泉)이란 수계명으로 지난 50여 년 동안 불자의 삶을 살고 있다. ‘불교미술 현대화, 불교디자인 개척화’라는 화두를 안고 대한민국 산업 디자인전 초대작가와 심사위원등으로 활동하면서 일러스트, 단청, 탕화, 디자인 등 국내외에 발표한 200여 회의 작품이 모두 불교를 소재로 한 작품들이다.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학장과 디자인 대학원 원장을 역임한 후 현재 광주·전남모임 본부장으로 활동 중이며, 맑고 향기롭게 연꽃 캐릭터 매뉴얼 북 연구를 통하여 모든 디자인 작업을 체계화 하였다.

## 예배와 염불은

글 • 변택주

장마가 든다더니 밖에 비가 주룩주룩 하루 종일 구성지게 내린다. 하안 거夏安居 기간답다. 안거란, 부처님 당시 여름철 우기雨期에 수행자들이 돌아다니며 수행을 하다가 폭풍우를 만나 피해를 입기도 하고, 또 본의 아니게 나무와 풀 그리고 벌레들을 밟아 죽이는 일이 잦았다. 그런 일을 막으려고 긴 장마 기간 동안 수행자들이 바깥나들이를 하지 않고 실내에서 수행에만 몰두하게 한 데서 비롯되었다. 이 안거 기간 동안 스님들은 경내 선방에 머물면서 참선 수행을 한다. 한편 재가 불자들은 안거 기간 동안 봉행하는 기도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나라 절 살림이다. 기도에 앞서 해야 하는 일은 예배를 올려 자기 잘못을 참회하는 일이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예배는 교회나 성당 집회에 참석하는 말로 아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절집에선 예배드린다는 말은 다른 종교에 양보하고, 예불禮佛 올린다는 말을 쓴다. 하지만 예배는 본디 절집에서 유래한 말로 부처님께 절을 올린다는 말이다. 절은 오체투지라고 해서 이마를 땅에 대고 팔꿈치와 무릎을 땅바닥에 대어 자기를 낮추는 겸허하고도 경건한 의식이다. 티베트 사람들은 온몸을 땅에 다 던져서 나를 낮추는 온몸투지를 한다.

사찰을 일컫는 ‘절’은 절을 많이 하는 곳이라서 절이라고 했다는 설도

있다. 하지만 ‘절’ 말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본디 ‘털’이었다. 신라에 처음 불법을 전한 아도 스님이 숨어 지낸 곳이 ‘털레毛禮’였다. 이 털레 준말이 ‘털’=‘절’이 되었다는 것이 정설로 알려져 있다.

내가 다니는 절에는 한 달에 한 번 아미타부처님께 삼천 번 절을 올려 예배드리는 철야 정진 프로그램이 있다. 열혈 불자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열심히 참회 정진하는 모습이 아름답다. 한데 얼마 전 몇몇 도반에게서 자신은 그 철야 정진에 한 차례로 빠지지 않고 나갔으면서 자랑스러워하는 말을 들었다. 그 순간 펄떡 ‘아차!’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절을 하며 허리 숙여 이마를 땅에 대면서 겸손해진다. 부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제껏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서 잘못 산 부분을 뉘우치고 더는 허물을 짓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참회다. 참회는 불성을 깨우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순수한 행위이다. 철저하게 비위 자기를 없애는 행위다. 그래서 절은 간절한 마음이 우리나라오도록 한 동작 한 동작에 정성 어린 마음을 담아 공손하게 올려야 한다. 아울러 한 배 한 배 절을 올릴 때마다 널리 모든 목숨들이들을 내 몸처럼 아끼고 공경하겠다는 의지 위에 순수하게 자신을 낮추는 열린 마음을 담아야 한다. 그렇지 못하고 숫자만 열심히 채우려 든다면 참 예배 뜻이 담길 틈이 없다. 삼천 배 정진에 ‘몇 차례 동참을 했네’ 하는 생각 따위에 빠진다면 그야말로 전도몽상傳道夢想이다.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는 일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 하나 더 있다. 부처님 처럼 살겠다는 다짐을 담은 염불念佛이 그것이다. 염念자를 풀어 놓으면 지금

금속자와 마음 심心자로 나뉜다. '바로 지금' 마음을 낸다는 말이다. 염불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모든 중생을 아끼고 공경하는 부처로 살겠다고 염원念願하는 일이다.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을 비롯한 많은 보살님 명호를 염송念誦할 때도 마찬가지. 관세음보살을 염송할 때는 관세음보살 공덕을 떠올리면서 나도 그와 같이 고통을 겪는 많은 중생들을 '바로 지금' 건지겠다는 서원을 담고, 지장보살을 염송할 때는 지장보살처럼 지옥 중생까지 모두 건진 다음에야 성불하겠다는 서원誓願을 다지는 일이다. 염불 삼매三昧란 바로 이런 서원 바탕 위에서 하는 보살행과 부처행을 뜻한다. 염불이 그저 입으로만 되뇌는 송불誦佛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할 일이다.

지난봄 정기법회에서 법정 스님께서는 “절이 생기기 전에 먼저 수행이 있었습니다. 절이 생기고 나서 수행이 따라온 것이 아닙니다. 내가 왜 절에 가는가. 왜 교회에 가는가? 그때그때 스스로에게 물어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 삶이 바뀝니다.”라는 말씀을 하셨다.

우리는 흔히 교회나 법회를 장소로 여기는데 그것은 잘못이다. 교회教會란 무엇인가. 교회는 가르침, 진리를 나누는 모임이다. 법회法會도 마찬가지. 예수님이나 부처님이 처음 사람들을 교화할 땐 교회나 절이 없었다. 교회나 절이 생기기엔 앞서, 이렇게 사는 게 바른 삶이라는 예수님 말씀, 부처님 말씀이 펼쳐지는 야단법석野壇法席이 있었을 뿐이다. 진리말씀과 바르게 사는 행行만 있었다. 그게 종교다. 종교인은 진리에 맞는 삶을 사는 사람을 말한다. 부디 발보리심發菩提心해서 행보리심行菩提心할 일이다.

## 고통은 완성을 위한 시련

글·법 정(法 頂)

즐거워야 할 방학이 어쩐지 무섭고 두려움이 앞선다는 너의 그 불안한 마음을, 어디로고 훨훨 떠나고 싶다는 어린 마음을 나는 충분히 알 수 있었다. 너의 글에서 학창 시절의 내 모습을 읽을 수 있었음이 심히 서글펐다.

마음하는마음을 다해 사랑한다는 뜻으로 쓴 말인 듯하다. 아우야!

마음 기댈 곳 없이 안타까이 헤매는 너에게 나는 무엇을 줄 수 있을 것인가? 나는 무능하다. 힘이 없구나. 그지없이 안타까워할 뿐이다. 그러나 결코 실망하진 말아라. 우리들의 앞길은 아직도 멀다. 지금의 고통은 우리들 인격을 완성해 가는 데 하나의 시련으로 봄이 좋을 것이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다음의 말은 루터가 아니라 네덜란드 철학자 스피노자가 한 말이다.는 이렇게 말한다.

‘아무리 세계의 종말이 명백하다 하여도 나는 오늘 능금나무를 심는다고, 여유 있는 인생의 태도다. 어떠한 고난에 부딪힌대도 자기 할 일은 꾸준히 해 나가는 건전한 생활인의 자세를 배워 봄직도 하지 않겠는가?’

아우야!

항시 즐기찬 의욕을 지니고 모든 고난을 박차고 싱싱하게 즐겁게 살아  
가자. 편지로나도 좋으니까 무엇이든지 고민하고 있는 것, 혼자 생각으로는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것은 나에게 거침없이 물어라. 중에게 아무런 흥허  
물도 없으니까…….

앞마당에 화단이 생겼다니 참 고마운 일이다. 꽃을 가꾸는 그 고운 마음  
씨는 얼마든지 높이 찬양할 수 있는 것이다. 무기 대신에 아름다운 화분과  
꽃씨를 국제 간에 서로 교환할 수 있는 시대가 와야만 세상도 가히 살아갈  
만한 세상일 게다.

고향집에 내려가거든 할머니님과 작은아버님…… 고루고루 문안 여쭙어라.  
성남이, 순애들도 무얼 하고 있는지. 인연이 다가오면 언제고 만날 날이  
있으리라.

잘 있거라. 많이 읽어라.

1958년 7월 24일 밤, 파초 잎이 후두기는 빗소리 들으면서

법정 합장

---

\* 발췌 : 마음에 따르지 말고 마음의 주인이 되어라 / 책읽는섬

「마음에 따르지 말고 마음의 주인이 되어라」는 법정 스님이 출가 직후 사촌동생인 박성직에게 보내  
온 편지를 묶은 것이다. 박성직은 어린 시절 한집에서 같은 방을 쓰며 친형제처럼 지냈다. '나 대신  
네가 아들 노릇 해 달라'는 스님의 부탁을 받들어 결혼한 뒤에도 법정 스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  
다. 이 편지는 청년 박재철이 승려 법정으로 변해가는 모습이 오롯이 담겨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 자신답게 살고 있다면

글 • 김옥림

**그대가 서 있는 바로  
그곳에서 자기 자신답게 살고 있다면,  
그 자리에 좋은 말씀이 살아 숨 쉰다.  
- 법정 -**

자신답게 사는 것처럼 자기 인생을 가치 있게 하는 것은 없다. 자신답게 산다는 것은 자신의 주체적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신답게 산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렇게 산다는 것은 쉽지 않다.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고, 그에 걸맞게 배우고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

자신답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끊임없이 좋은 가르침을 받기 위해 노력한다. 가르침을 삶의 빛으로 삼는 까닭이다. 둘째, 자기 주체성이 강해 주체적인 삶을 살기를 바란다. 그러다 보니 남을 흉내 내거나 부화뇌동하지 않는다. 셋째, 상황에 좌지우지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자신답게 사는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에서 보듯 그들은 중심이 바르고, 가르침대로 살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다 보니 늘 마음을 열어 놓고, 귀를 열어 놓고, 눈을 반짝이며 새로운 가르침을 받기 위해 노력한다.

지금 자신답게 살고 있다면 자신의 인생을 가치 있게 살고 있다는 방증이다. 자신을 가치 있는 인생이 되게 하라.



---

**김옥림**· 시와 소설, 에세이, 동화, 동시, 교양, 인문, 자기계발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집필 활동을 하는 시인이자 아동문학가이다. 20년 넘게 YWCA, 도서관, 평생교육정보관, 여성회관 등 각 기관단체에서 어린이들과 어른들에게 글쓰기 강의를 하는 한편, 어린이 글쓰기교실인 초우서원을 창립해 일주일에 한 번씩 동시와 동화 등 글쓰기 지도를 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 남을 위해 다는 연등 하나

나만을 위해 보시 말고  
중생에게 회향하는 마음으로 보시하라  
재물가지고 보시하되  
이와 같은 마음으로 보시면  
큰 공덕을 얻게 된다

— 증일아함경 —

불기 2564년 부처님오신날이 다가왔습니다.

중생들의 구제를 위해 자비의 가르침을 펴신 부처님의 뜻을 따라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에서는 ‘남을 위해 다는 연등 하나 - 자비의 등 달기’ 운동을 펼칩니다.

‘자비의 등 달기’ 운동은 법정 스님이 불일암에 머무르실 때부터 주창하신 이웃과의 나눔 운동입니다.

나 자신이나 내 가족, 친지가 아닌 우리 곁의 어려운 형편의 이웃들을

위해 연등을 밝히자는 취지로 맑고 향기롭게 모임에서는 1995년에 처음 시작했던 운동이기도 합니다.

이 운동의 방식은 본모임이 결연을 맺고 있는 재가복지사업 대상자 중 어려운 형편으로 연등을 밝히지 못하는 불교신도를 위하여 길상사 도량에 자비의 연등을 밝히는 운동입니다.

그러나 올 해는 코로나19로 많은

이들이 고통과 불안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고통을 해소하고 행복과 평안을 주는 부처님의 자비가 우리 마음과 온 세상에 가득히 피길 기원하는 마음으로 후원자의 이름으로 자비의 등을 달며, 모여진 성금은 전액 결식후원 대상자에게 생필품을 전달하는데 사용합니다.

우리 마음을 맑히는 마음으로 모든 생명의 건강과 국난 극복을 발원하는 내용을 담아 향기로운 세상과 자연을 향기롭게 하는 자비의 등을 밝히고자 합니다.

참고로 코로나19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기 위해 한국불교종단협의회에서 봉축 일정을 한달 늦춘

윤사월로 조정하였습니다. 부처님 오신날인 4월30일에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1만5,000개 사찰이 ‘코로나19 극복과 치유’를 위한 기도 정진에 들어가며, 한 달 여 간의 국난 극복 기도를 마무리 하는 회향식은 5월30일 전국 사찰에서 열릴 예정이며, 봉축행사의 하이라이트 연등회는 5월23일부터 24일까지 동국대와 종로 일대서 펼쳐집니다.

‘중생들을 모두 깨달음에 이루게 하겠노라’는 서원과 함께 속세로 오신 부처님처럼 ‘나의 마음과 내 가족의 행복은 물론이요,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연등 하나 환히 밝히는 자비의 등 달기 운동에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자비의 등 동참금** : 최소 10,000원 이상
- **동참방법** : 계좌입금을 해주실 경우 입금자 이름 옆에 ‘자비’라고 써주시거나 중앙사무국으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입금처** : 결식후원계좌 국민은행 817-01-0255-458 / 맑고향기롭게



**중앙모임 소식 (02-741-4696)**

2020년 맑고 향기롭게  
**‘대학생 장학생’ 추천받습니다.**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에서는 2020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에 따라 장학금 지원 대상자를 고교생에서 대학생으로 선발하여 지원합니다. 가정 형편이 어렵지만 장학금 수혜를 받지 못하거나 기존 민·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학 장학금에서 등록금 지원만으로 학업을 이어가기 힘든 학생 그리고 타 장학사업 선발에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 **선발 인원 : 최대 25명**

■ **신청 자격**

구분	신청자격
가	<p><b>대한민국 국적자로서 학적이 아래 ①,②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b></p> <p>① 서울 소재 대학교 중 법인 근교 대학생 우선 선정 (전문대 2~3학년 학생 / 일반대 2~4학년 학생)</p> <p>② 대구, 경남, 광주모임 추천 대학생 전문대 2~3학년 학생 / 일반대 2~4학년 학생 (제외 : 사이버대학교, 방송통신대, 평생교육원 학생 제외)</p>
나	<p><b>소득 기준이 아래 ①~③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b></p> <p>①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p> <p>② 2020년 1학기 한국장학재단 소득 0~4분위</p> <p>③ 소득 0~4분위 이외의 자</p>
다	<p>군필자(여성 및 군 면제자 해당사항 없음)</p>

※ 신입생 제외 사유 : 등록금 납부기간이 1월~2월로 학교마다 상이하며 연초 장학생 모집·선발 일정 계획이 어려움

※ 군미필 제외 사유 : 등록금 지급 후 군 입대로 인한 지급 중지, 사회공헌활동 참여가 어려울 수 있음

■ 구비서류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구분	신청자격	
공통	- 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본모임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전체 학기)	
	- 기타 증빙서류	자원봉사활동 증명서 각종 수상 실적 등 (해당 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초본(군필 여부 기재) (각 서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처리)	
	- 통장사본	
기초생활수급자 (해당자)	- 수급자증명서 : 생계급여/의료급여/보장시설 수급자	
차상위계층 (해당자 택)	- 수급자 증명서 : 생계급여/의료급여/보장시설 수급자 - 자활근로확인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 장애연금·수당·장애아동 수급자 확인서 - 차상위 계층 확인서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소득분위 2~8분위	- 소득구간(분위) 통지서	
	- 건강보험납입증명서(부모 및 본인-해당 시)	
지부 사무국 추천 시	- 각 지부 사무국 추천 서류	
기타	- 경제적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서류 첨부 가능	

■ 장학 금액 : 장학금 소득구간 별 차등지급

소득구간	기준소득구간 경계값	지원금액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0~3구간	월 소득 : 3,229,475 이하	200만 원
4~6구간	월 소득 : 4,152,182 ~ 5,997,597	150만 원
7구간	월 소득 : 6,920,304 이하	50만 원



■ 신청방법

① 맑고 향기롭게 홈페이지(www.clean94.or.kr) 접속



② [공지사항] > [2020년 맑고 향기롭게 - 대학생 장학사업 선발공고 클릭]



③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워드, 자필 등 작성 후 서명)



④ (사)맑고 향기롭게 중앙사무국 우편발송(등기) 접수

- 접수 마감 : 2020년 5월 29일 우편 소인까지
- 선정 발표 : 2020년 6월 18일 개별 통지 및 학교로 연락
- 문의처 : 맑고 향기롭게 02)741-4696(총무팀)
- 자세한 내용은 맑고 향기롭게 홈페이지(www.clean94.or.kr) 공지 참조
- 장학금 후원 동참 계좌 : KEB하나은행 220-890015-10204 / 맑고 향기롭게

**코로나19 복구 성금 전달하였습니다.**

코로나19 여파가 전국으로 확산돼 어려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사)맑고 향기롭게에서 도움의 손길을 보태고자 지난 3월 12일, 코로나 피해 지원 성금 모금을 진행 중인 BTN불교TV에 코로나19 극복 성금 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사장 덕일 스님은 “법정 스님께서는 항상 이웃이 어려울 때 같이 나뉘야 한다는 가르침에 따라,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고통을 겪게 됐는데 회원분들의 작은 정성을 모아서 코로나를 예방하고 이미 확산을 받은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작은 정성을 모아 전달하게 되었다”고 성금 전달의 취지를 밝히셨습니다.

BTN으로 모금되는 성금은 사회 취약계층에게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기초 위생용품을 전달하고, 의료기관에 방호복 세트, 보호경 등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는 데 활용될 예정입니다.

법정 스님의 무소유와 나눔의 가르침을 이어받고 있는 맑고 향기롭게와 길상사는 어려운 상황에서 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살행을 실천하겠습니다. 또한, 하루 빨리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소멸되어, 활발한 나눔의 현상이 지속될 수 있기를 바라며, 회원님과 봉사자 모든 분이 건강하길 기원드립니다.

## 맑고 향기롭게 정기 자원활동 봉사자 모집

### ·맑고 향기로운 반찬 나눔 조리 활동

맑고 향기롭게 중앙모임에서는 우리 주변에 홀로 사는 어르신, 장애인, 결손가정 460여 가구에 밀반찬 2가지(매주 목, 금요일)와, 김치(3월-10월 둘째 목요일)를 지원하고, 명절(설날, 추석)과 정월대보름, 부처님 오신날에는 생필품을 나누며, 연말에는 김장김치를 대상자 가정에 15kg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예방과 감염 방지를 위해 봉사자들이 모여야 하는 조리 활동을 잠정 중단하고 사무국에서 반조리 식품으로 대체하여 나눔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진인 노인요양원 자원활동

진인 노인요양원 자원활동은 오전에는 시설 청소, 주방 봉사를 하고, 오후에는 어르신과 어울려 민요, 국악 등 놀이 활동으로 진행하였으나,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잠정 중단중입니다.

### ·서울노인복지센터 자원활동

서울 종로구 안국역 옆에 위치한 어르신 이용시설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는 매일 2,000여 명이 넘는 어르신들께 무료로 점심을 제공하고 있으며, 맑고 향기롭게 자원활동팀은 매주 월요일에 참여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활동이 잠정 중단중입니다.

### ·의류 리폼 자원활동 봉사자 모집

맑고 향기롭게 의류리폼 자원활동은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작은 환경운동으로 안 입고, 못 입는 자투리 천을 이용하여 각종 소품이나 재활용품을 만들어 길상사 경내에 개점한 '맑고 향기로운 가게'를 통해 판매하고, 수익금은 세상 사업 기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길상사내 세계일화실에서 오후 12시부터 4시까지 의류리폼활동을 진행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활동을 잠정 중단중입니다.

### ·생태사찰 가꾸기 봉사자 모집

본모임은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에서 우리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며 생명의 존엄을 배우고 사소한 일상생활일지라도 생태적으로 살라는 법정 스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자 길상사 생태사찰 가꾸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활동이 진행되오니 뜻을 함께 하고자 하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숲기행 잠정 중단

2020년 3월부터 시작 예정이었던 숲기행은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고자 잠정 중단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숲기행을 다시 진행할때는 홈페이지와 소식지에 관련 내용을 재공지할 예정이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간편한 CMS 후원

금융결제원의 중개를 통해 후원자님의 계좌에서 후원금을 인출하여 본 모임으로 입금되는 방식으로 은행을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사무국으로 직접 방문 혹은 본 모임 홈페이지에서 CMS후원 가입을 신청하면 됩니다.

### 자동이체 후원

후원자님이 원하시는 일자에 매월 일정 금액이 본 모임으로 입금되도록 하는 후원 방법으로 주민등록증, 통장, 도장을 지참하고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후원금액 변동이나 중단 시 신청하신 은행에 직접 가셔야 합니다.

### 일시 후원

뜻 깊은 일이나 기념일을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경우, 정기적인 후원이 부담되는 경우, 본모임 회원은 아니지만, 활동에 공감하여 일시적으로 후원하고자 하는 경우, 다달이 소식지를 받아보는 우편비로 소정의 금액을 후원하고자 하는 경우에 직접 본모임 후원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입니다.

※ 본모임 회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분 중에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필요하신 분은 인적사항이 필요하므로 사무국으로 연락해주세요.

### 지로 후원 안내

가장 전통적인 방법으로 우편 배송되는 지로용지나 지로 번호를 통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본 모임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지로 번호 : 7618372**

지로 번호로 은행에 가지지 않고도 인터넷(www.giro.or.kr)에 접속하여 직접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4월 중앙모임 정기 활동 안내

####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소식지 우편 발송 자원활동 : 2일(목)/오전 10시~12시/세계일화실
- 필사모임(법정 스님 저서 읽기) : 코로나19로 인해 활동을 잠정 중단합니다.

####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맑고 향기로운 반찬 나눔 자원활동 : 코로나19로 인해 봉사자들이 모여야 하는 조리 활동은 진행하지 않고 반조리 식품으로 대체하여 나눔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치 나눔 자원활동 : 코로나19로 인해 봉사자들이 모여야 하는 조리 활동은 진행하지 않고 반조리 식품으로 대체하여 나눔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서울노인복지센터 점심 무료급식 자원활동 : 코로나19로 인해 활동을 잠정 중단합니다.

- 진인 노인요양원 원내 청소 및 오후 놀이 마당 정기 자원활동 : 코로나19로 인해 활동을 잠정 중단합니다.

- 숲기행은 코로나19로 인해 잠정 중단합니다.

###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 의류 재활용 봉사모임 : 코로나19로 인해 활동을 잠정 중단합니다.
- 생태사찰 가꾸기 모임 : 매주 월, 목요일/길상사 경내

### 〈정기 재정 후원〉

- 시각장애인 호송 단체 '부름의 전화' 정기 후원
- 서울 지방 변호사협회 결연 청소년 지원
- 제주도 극빈 어르신 정기 물품 지원
- 인도 다람살라 잠양(jamyang) 비구니 스님 학교 후원

### 후원계좌안내(CMS, 계좌입금)

'길이 열리는 만큼 물이 흐르듯 본 모임의 사업은 100% 회원님의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맑고 향기롭게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활동소식을 비롯하여 법정 스님의 글과 삶의 지혜가 담긴 알차고 유익한 월간 '맑고 향기롭게'을 정기적으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 • 일반사업 후원계좌

국민은행  
817-01-0253-129  
KEB하나은행  
201-890400-87705  
농협 029-01-199412

#### • 결식이웃 후원계좌

국민은행  
817-01-0255-458

#### • 아름다운 마무리 후원계좌

신한은행  
100-013-787953

#### • 장학금 후원계좌

KEB하나은행  
220-890015-10204

#### • 예금주 : (사)맑고 향기롭게

\*후원하신 금액은 연말정산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의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 : 02.741-4696 / 홈페이지 : [www.clean94.or.kr](http://www.clean94.or.kr)

• 이메일 : [clean94@hanmail.net](mailto:clean94@hanmail.net) / 주소 : 서울 성북구 선잠로5길 68 길상사내



## 대구모임 (053-753-8883)

• 대구모임은 2층을 회원모임 공간과 사무실로 3층은 법정스님 자료와 도서, 대중강연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 함께 활동할 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홀로 어르신 밑반찬 조리, 배달 및 말벗 나눔**  
: 매주 수요일 / 음식조리활동(10시~13시), 배달 및 말벗활동(19시~21시)

• **연꽃 피는 집(차매노인 요양시설) 정기방문 자원봉사활동**: 매월 셋째 화요일 / 대구은행 본점 앞 9시 출발 / 목욕, 식사도움, 빨래 정리, 말벗

• **청도 운문사 봉사**: 매월 둘째 주 금요일 / 대구은행 본점 앞 9시 집결, 출발 / 공양 준비 및 공양재료 다듬기, 청소 등

• **햇살청소년자원사업**: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 가정에 물품 및 문화정서 지원 프로그램 / 분기별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가정과 함께 영상 및 문화기행 진행

### • 정기 자원 활동가 모집

(사)맑고 향기롭게 대구모임은 소외된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삶의 행복을 찾고자 하는 분들의 참여를 수시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 홀로어르신 반찬 나눔 조리봉사: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 맑고향기롭게(소식지)발송: 매월 초

\* 사옥 관리 및 청소: 월중 수시

\* 홀로어르신 반찬 나눔 배달봉사: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 • 대구모임 3층 '시민서로배움터' 강좌 안내

맑고 향기롭게 3층 서로배움터에서 참선 및 작은 임제록 공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임제록 이후 금강경수업이 시작 될 예정입니다.

회원, 봉사자분들, 그 외 공부를 시작해보고 싶은 신 모든 도반님들을 환영합니다.

\* 시간: 매주 화, 금 오후2시

\* 교재: 무비스님의 작은 임제록

### • 법정 스님 책읽기모임 '일기일회' 함께해요

매월 셋째 주 금요일 저녁7시에 회원들이 함께 모여, 법정 스님의 저서 읽기 모임인 '일기일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정 스님의 말씀과 지혜를 책에서 배우고 나누는 시간을 함께 할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후원 : 대구은행 002-05-016277-8 (사)맑고 향기롭게 대구지부



### 경남모임 (055-266-0170)

- **결연가정 후원** : 월 생활비 지원, 말반찬 및 김장김치 나누기 / 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 오후 4시 / 명절 및 가정의 달 세대 방문 성금 및 생필품 전달
- **장학금 후원** : 결연세대 청소년 장학금 지원
- **외부 시설 봉사활동**
  - 보현행원 : 무료노인요양원으로 매월 셋째 수요일 말벗 및 빨래 노력봉사 / 오전 9시 30분 사무국 출발
  - 사파복지회관 : 무료급식소(자비 공양의 집), 매월 넷째 주 화요일과 매주 토요일에 점심준비 및 설거지, 배식 봉사/오전 10시~오후 2시
  - 해 뜨는 교실 : 봉림 청소년 문화의 집, 저소득층 공부방으로 매월 첫째 목요일 오후 5시 학습지도 및 간식 지원 / 초·중·고등 40명 지원
- **천연화장품 만들기 모임** : 매월 첫째, 둘째 금요일 진행 / 오후 1시 30분 / 사무국
- **친환경 수세미 나누기** : 매월 둘째 화요일 모임 및 친환경 수세미 판매
- **위안부 할머니 자원활동** : 지역 내 홀로 생활하시는 위안부 할머니 찾아뵙기 및 자원활동
- **선 수련 모임** :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 열린법당 '마하연'
- **회원 만남의 날** : 매월 넷째 수요일 오전 11시 / 사무국
- **정기 후원자 및 자원 활동가 수시 모집**

후원 : 농협 932-01-002933  
(사)맑고 향기롭게 경남지부

### 광주모임 (062-236-3129)

- **점심공양나눔**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령, 저소득, 독거어르신을 대상으로 천원의 밥상(점심) 운영 / 오전 9시 30분~오후 2시 / 봉사자 및 후원자 모집(김치 담그기 / 매주 토요일 공양 나눔 센터)
- **자비의 도시락 나눔 활동**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세대를 위한 도시락 나눔
- **광주모임에서는 동구 산수동에 지역 회원들의 친목과 불자들의 소통, 나눔의 공간으로 맑고 향기로운 가게 '무소유' 찻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원님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독서모임** : 법정 스님의 저서를 매월 선정하여 읽고 회원들과 함께 교류 / 매월 둘째 수요일 / 사무국
- **노래모임** : 건전가요, 명곡 노래 교실
- **장학사업** : 가정환경이 어려운 고등학생을 선발하여 3년간 학비 전액 지원
- **장터 및 바자회 운영** : 회원 및 이웃 대상으로 생필품 교환, 기증 헌 옷 판매, 농산물 직거래, 친환경제품 판매
- **쓰레기 줍기 캠페인** : 연중 회원 및 봉사자들과 주변 환경 및 사찰주변 쓰레기 줍기 캠페인 전개
- **천연화장품 만들기** :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 천연세숫비누, 빨랫비누, 천연 화장품
- **정기 후원자 및 자원활동가 수시 모집**

후원 : 농협 355-0018-7812-13  
(사)맑고 향기롭게 광주지부

## 4월의 길상사 정기 법회 기도

길상사 각종 기도 및 법회는 중단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당분간 대중 참석은 자제하되, 사중의 모든 스님께서는 더욱더 기도정진하고 있습니다.

일요가족법회, 청년회법회, 중·고등법회, 어린이법회, 새신도 교육은 코로나19가 안정화 될 때까지 잠정 휴회되며, 이후 중단 지침 변경 및 정부 재난 지침에 따라 변동이 있을 경우 홈페이지를 통하여 안내할 예정입니다.

이에 신도님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신도님께서도 개인적으로 길상사 내 법당에서 참배하실 때 마스크를 필수 착용하시고, 신도간에 간격을 넓혀 개인 기도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에 부처님오신날 행사 한달 뒤로 연기

오는 4월 30일(음.4.8)로 예정된 불기 2564(2020)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행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한 달 뒤로 연기됩니다.

대한불교 조계종과 태고종, 천태종, 진각종 등 30개 불교 종단으로 구성된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3월 18일 기자회견을 열어 "4월 30일로 예정했던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을 5월 30일로 연기하고,

'연등회'도 5월 23일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4월 30일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전국 사찰 1만5천여곳에서는 '코로나 19 극복과 치유'를 위한 한 달 기도가 시작되며, 5월 30일 전국 사찰에서 열리는 부처님오신날 법요식에서는 한 달 기도로 닦은 공덕을 다른 중생들에게 돌리는 회향에 나섭니다.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

# 불기2564년(2020년) 부처님오신날 연등모연 안내

불기2564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에서 연등공양을 접수받습니다.

연등을 밝히는 것은 어두운 곳에서 밝은 세상으로 향하는

지혜와 자비를 뜻합니다.

‘중생들을 모두 깨달음에 이르게 하겠노라’는 서원과 함께 속세로

오신 부처님처럼 나의 마음과 내 가족의 행복은 물론이요,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 훼손되고 오염되어 죽어가는 모든 생명들을 위하여

지혜와 자비의 연등을 환히 밝히시고,

아울러 내 마음에 부처님 한 분을 모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와 접수는 길상사 동무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당등(10만원)	도량 연등(3만원)
극락전 가족등	도량 가족등
지장전 영가등	도량 영가등

 입금 계좌: 신한은행 140-003-845653  
(입금후 동무실로 전화 확인)

 문의 : 길상사.02)3672-5945



# 법정 스님 수행취 사진 공모전

## ●공모주제

법정 스님 출가 고향 마을(전라남도 해남 우수영), 경남 통영 미래사, 경남 하동 쌍계사, 경남 양산 통도사, 경남 합천 해인사, 서울 강남 봉은사, 전남 순천 송광사&불일암, 서울 삼각산 길상사에서 스님과 불자들이 수행하는 모습, 지혜와 자비행을 실천하는 모습, 고즈넉한 산사의 아름다운 풍경, 사찰 전통 건축양식 및 자연경관상 등 주제에 적합한 작품사진

## ●공모자격 제한없음

## ●접수기간 2020년 8월 1일 ~ 8월 20일 까지

## ●입상작 발표 및 시상식 차후 공지

## ●공모주제

- (사)맑고향기롭게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시고, 참가신청서를 내려받아 사진과 함께 이메일(clean94@hanmail.net) 로 접수바랍니다.
- 1인 3작품 이내

## ●출품규격

- 디지털 사진 /JPG 이미지파일로 최소 1,000만 화소 이상/크기는 3MB 이상
- 필름 사진은 스캔 후 응모 가능

## ●유의사항

- 시상작은 공모전의 목적 달성을 위해 공공의 목적으로 개최되는 전시 및 간행물 발간, 홍보자료 제공 등 복제, 전시, 배포할 수 있습니다.
- 작품으로 인한 소유권, 저작권, 초상권 문제에 대한 책임은 출품자에게 있음

## ●주최 (사) 맑고 향기롭게

## ●시상 내용

종류	인원	상금액
대상	1	상장 및 상금 200만원
최우수상	2	상장 및 상금 100만원
우수상	3	상장 및 상금 50만원
장려상	6	상장 및 상금 20만원
입선	20	상품권 5만원, 법정스님 사진첩

- 시상인원은 응모작품수 및 작품완성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www.clean94.or.kr / Tel. 02.741-4696